

보도시점 2026. 5. 25.(월) 11:00  
5. 26. (화) 조간

배포 2026. 5. 22.(금) 16:00

## 가정의 달 5월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77개소 적발

- 거짓표시 업체 5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업체 72개소 과태료 3,971천원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5월 4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여 위반업체 77개소(품목 78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5.8.)과 스승의날(5.15.)에 수요가 많은 카네이션 등의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77개소로 위반품목은 카네이션이 65건(83.3%)으로 가장 많았고, 장미 8건(10.3%), 국화 3건(3.8%) 등이며, 전년 대비 위반업체는 5개소(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업체 중 중국산·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거짓 판매한 5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7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971천원을 부과하였다.

\* (형사처벌)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물량에 적발 당일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최대 1천만 원 이하)

농관원 김철 원장은 “앞으로도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화훼류 원산지 표시 단속 주요 위반사례  
2. 화훼류 원산지 표시 업체 단속 장면

담당 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책임자	과 장	박홍진 (054-429-4151)
		담당자	사무관	김영교 (054-429-4156)

## 붙임 1

### 화훼류 원산지 표시 단속 주요 위반사례

#### 1. 거짓표시

(광주광역시 소재 화원) 중국산 카네이션을 꽃바구니로 제작·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80kg / 위반금액 400만원) → 형사입건

#### 2. 미표시

(전라북도 소재 화원) 네덜란드, 콜롬비아, 국내산 장미로 꽃바구니를 제작·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미표시 → 과태료 부과

(충청남도 소재 화원) 베트남산 국화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미표시 → 과태료 부과

## 붙임 2

### 화훼류 원산지 표시 업체 점검 장면

